

재를 왜 이마에 바르나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 이라고 하며 지난해 성지주일에 축성한 성지 가지를 태워 사제가 그 재를 찍어 신자들의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합니다. 이때에 창세기 3장 19절을 인용하여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하고 말합니다. 재는 물건이 타고 남은 잔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범한 죄의 잔재로서 그 죄에 해당하는 보속을 상징합니다. 구약성서에는 욥이 하느님의 시련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잣더미에 앉았고(욥기 2,8),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설교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요나 3,6). 신약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동네를 꾸짖으시며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마태오 11,21)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은 인생무상을 깨우치고 죄에 대한 보속을 먼저 해야 부활의 기쁨을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